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두 달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이번 안식년 기간을 현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그동안 해오던 대로 지체들을 돌보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사실 여전히 많이 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일 외에는 삶의 다른 부분들을 단순화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물론 이사와 비자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문제가 하나하나 잘 풀렸고, 매순간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1. 이사... 4번째 집

선교지에 와서 거의 매년 이사를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이 좁아져서, 두 번째는 공간이 찾아와서, 세 번째도 공간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년에 센터를 단독으로 구했고, 이번엔 저희 주거 공간을 찾아 이사한 것입니다.



▶ 이사 후 하겸이 등교길에

특별히 이번엔 개인 주거 공간이었기에, 거실과 다른 공간들이 클 필요도 없었고, 또 재정사정에 맞춰서 도심의 중심부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막내 하겸이의 학교가 더 멀어져서 등하교시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수고를 하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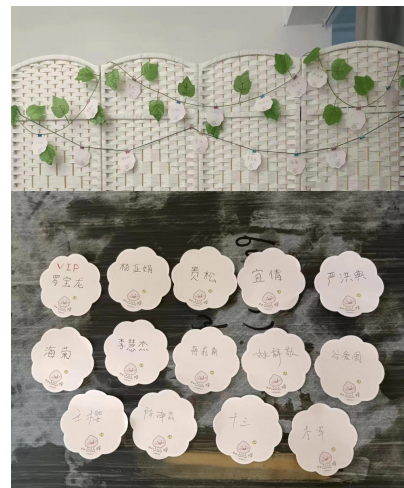
2. 첫 번째 사업비자 연장

더 이상 학생비자 연장이 불가했기에 작년 사업비자로 전환했고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이 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항상 비자 갱신 시에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비자를 얻은 후 첫 갱신이었는데 학생비자 때와는 다르게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여러 관공서들을 다니며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고, 또 퇴자를 맞고 보충자료들을 가져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은 6개월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앞으로 6개월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 전도 초청 행사 후 실망...



▶ 전도 대상자 명단

지난 부활절을 기념으로 전도 초청행사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동안 이 땅에서 만난 거의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며 몇 친구에게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일 예배는 은혜를 주셔서

▶ 전도 대상자 명단 잘 마쳤지만, 어찌나 실망이 되던지 주일 모임 후에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죄송하여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4. 한 영혼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주 속상한 마음을 안고 사람을 찾아 센터 주변 동네를 정말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하면서 생긴 아이들의 철지난 옷과 신발 또는 필요 없게 된 집기류등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꽃집 젊은 애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환대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눈물을 글썽이게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일 모임에 나오겠다는 약속까지



▶ 꽃집 주인 씨아오수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기뻐는지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속상한 마음이 한번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 이유를 말하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얘기하며.. ‘그래 원래 그렇게 쉽지 않았지, 만약 말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었을 거야..’라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5. 그럼에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왔고, 새롭게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 첫방문한 즈원이 안수기도

▶ 왕엔팡과 식탁교제

○아이를 출산하고 고향에 갔던 혜진이가 5개월만에 귀여운 아기(즈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공동체에 갓난 아이가 생기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임 때 마다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왕엔팡이 센터에 와서 3주간 살았습니다. 3년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훈련까지 완료했던 자매인데 지금까지 주일 예배는 못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홍콩으로 이사했고,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본토로 들어왔다가 비자가 해결 될 때까지 거처가 필요해서 먼저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다시 연결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 기간 함께 교제하며 예배도 참석했고, 다시 돌아가서는 좋은 공동체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기로 약속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센터가, 이렇게 필요한 지체들에게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고 있어 감사했습니다.

○지아웨이가 리스 자매를 데려 왔습니다. 원전에서 일했던 지아웨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를 돕기 위해 센터에서 살게 했고 또 그 후 안정된 직장도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대중교통으로 두시간 걸려 주일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친구가 새로운 지체를 전도해 온 것입니다.

○이칭과 이칭 엄마가 왔습니다.



▶ 이칭, 이칭엄마와 첫 만남

▶ 제자훈련 첫 시간

이칭은 대학 때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교회를 떠나고 환청이 시작되며 지금까지 10년간 신경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내는 자매였습니다. 똑똑하고 이쁜 자매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많이 비대해 지고, 몽롱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를 만났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칭 엄마는 이칭과 함께 몇 번의 만남과 예배에 참석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동안 의지했던 불교와 주술적인 것들을 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칭과 이칭엄마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 예배 후 식탁교제 & 단체사진

* * *

○ 기도제목

1. 안식년 기간 창세기를 연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주일 창1장1절부터 순차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체들이 신앙 안에 온전히 성장하게 하소서.
2. 6월부터 예배 시간에 지체들을 한명씩 세워서 짧은 메시지를 나누게 하려하는데, 이 일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이 있게 하소서.
3. 훈련을 새롭게 시작한 이칭과 이칭엄마와 함께해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게 하소서.
4. 하영, 하율, 하겸이의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영과 육이 함께 잘 성장하게 하소서.
5. 부모님께서 주와 동행함으로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